



정보보호 의식을 키우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글_ 김인순 전자신문 컴퓨터산업부 기자 insoon@etnews.co.kr

컴퓨터를 감염시켜 시스템을 다운시키거나 네트워크 접속을 방해하는 웜과 바이러스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자료도 가득하다.

보안 도구란은 해킹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보안 도구의 종류와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다. 이 코너에서는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용 보안 도구와 유닉스, 리눅스 계열의 보안 도구 문서가 소개돼 있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는 특히 매달 국내외 해킹과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이를 집계한 ‘인터넷 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 월보’를 발간한다. 월별로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는 이 자료는 정보보호 전문 기관답게 풍부한 정보와 꼼꼼한 분석이 특징이다. 9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웜과 바이러스는 8월에 비해 37.2% 감소했으나 중국과 미국, 일본, 대만, 인도 등으로부터 국내 네트워크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의응답(FAQ) 코너에서는 컴퓨터의 이상 증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이 소개돼 있다. ‘바이러스 백신 외에 해킹을 탐지할 수 있는 도구는 없나요?’란 질문의 답은 ‘개인용 방화벽 프로그램으로도 해킹 여부를 알 수 있다’이다. 프리웨어인 존알람이나 터니 등의 프로그램은 외부로부터 침투가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주는 기능을 한다.

지난 6월에는 인터넷뱅킹 해킹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가짜 행사사이트를 개설해 고객의 돈을 인출해가는 신종 인터넷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과 웜, 바이러스의 공격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신종 사기 수법까지 복합되면서 인터넷의 역기능이 날로 그 위험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뱅킹 사건을 비롯해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보안 의식이 철저했다면 모두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여기 정보보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http://www.krcert.or.kr)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는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해킹과 바이러스 등 각종 침해사고를 미리 탐지하고 분석해 마치 일기예보와 같이 예·경보를 내린다. 이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상시적인 정보 공유 및 신속한 공동대응체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센터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체제로 돌아간다. 다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사이트다.

이 사이트의 보안 문서 코너에 가면 국내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 웜과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얻어 패치를 할 수도 있다.



글쓴이는 숭실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자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